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대전 초등생 살인’ “재발방지 대책 필요”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고 김모 양을 살해한 교사는 지난해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했다 복직한

어떤 학생이라도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문제의 교사가 범행 며칠 전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했는데도 교육청과 학교는 이 교사의 자리만 옮겼을 뿐, 분리 등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왜 정신 질환이 있는 교사가 복직했냐”고 비판하며 교사의 신상 공개와 교육청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민 “단전·단수 쪽지 봤지만 지시 없었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서 단전·단수 지시 쪽지를 봤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지시한 적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 답변

하면서 “대통령실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를 봤다”고 증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다. 대통령실이 MBC·KBS 등 공영방송을 겨냥했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질 예정이다. 현재는 추가 증언·자료 토대로 ‘쪽지가 실제 지시로 이어졌는지’ 파악 중이며 이는 탄핵심판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33 검은색과 안전

검은색과 안전표지의 관계

●색채와 주목성  
안전표지의 종류에 있어 금지 표지는 원과 사각형이 사용되고, 45도 대각선으로 하며, 문자와 기호는 검은색을 사용한다.

위험 표지는 마름모꼴 형태이고, 주황색 바탕에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한다. 문자와 기호는 중앙에 표시하고, 검은색을 사용한다.

주의 표지는 삼각형 형태이고, 노란색 바탕에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한다. 문자와 기호는 검은색을 사용한다.

방사능 표지는 표지 밑에 두거나 표지를 포함한다. 문자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을 사용한다. 기호나 그림은 없다.

보조 표지는 표지에 포함하거나 표지 밑에 둔다.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사용하고, 그림이나 기호는 없다.

미국표준국(ASA)에서는 안전 색의 표시법을 제정했다. 검은색과 하얀색은 교통과 가정(家政)의 부호를 나타낸다.

영국표준협회(BSI)는 파이프라인을 식별하는 색으로 10가지를 제정했다.

이 체계는 공업시설과 공공시설에 응용되며, 그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돼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검은색은 배수(오염물)를 나타낸다.

러시아 화가인 말레비치(Malevich, K. S., 1878~1935년)는 1924년 수프라마티즘(Suprematisme)을 선언했다. 나는 회화가 새로운 구성을 토대로 순수한 색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의 토대는 색채의 법칙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그는 현대기술을 인정했으며, 기술적인 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체험의 변화를 창조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 순간, 인간의 길은 공간을 뚫고 나아간다. 수프라마티즘 다시 말해서, 색채의 교통표지는 인간적 심연으로 고양된다.

도로교통 표지판을 제작하는 규칙은 4가지가 있다.



첫째, 표지판의 바탕색은 주위환경과 커다란 대조를 이뤄야 한다. 특히, 사막에서는 노란색보다 녹색이 바탕색으로 적합하다.

둘째, 표지판에 사용되는 색은 명도 차이가 가장 커야 한다. 노란색은 빨간색보다 명도가 높아 바탕색으로 적합하다. 밝은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가장 효과가 좋다. 어두운 바탕에 하얀색 글씨도 적합하다.

셋째, 바탕색의 명도가 더 높아야 한다. 명도가 낮은 색은 글씨에 적합하다. 어두운 바탕에 밝은색 글씨는 흔들리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읽기 어렵다.

넷째, 유색은 검은색이나 하얀색과 결합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유색이 나란히 있으면 상쇄 효과가 생겨서 전체적인 인상이 불분명하다. 빨간색이나 녹색은 똑같이 강한 색이기 때문에 나란히 사용하면 인상이 아주 흐리고, 똑같이 밝은색을 나란히 사용해도 더욱 불분명하게 보인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올해의 자연 사진’ 수상작은



한 해 가장 멋진 자연 사진을 선정하는 ‘네이처 포토그래퍼 오브 더 이어(nature photographer of the year)’의 수상작들이 공개됐다. 네이처 포토그래퍼 오브

더 이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사진전으로 총 상금은 2만5000유로(3757만3500원)다. 종합 최우수상은 눈표범 형제 한 쌍과 잇을 수 없는 만남을 포착한 파올로 델라 로카의 ‘형제들간 놀이’가 선정됐다. 타 동물 부문 우수상은 아침 햇살 아래 깃털다리사마귀의 으스스한 그림자를 담아낸 세바스티안 블롬의 ‘섬뜩한 그림자’, 자연경관 부문 우수상은 바르네스의 ‘검은 옴양 해변’이 선정됐다.

뉴욕 지하철 환기구에 나타난 ‘북극곰’



환풍구에 널브러진 비닐 쓰레기는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북극곰이 된다. 예술가 조슈아 앨런 해리스의 작품 ‘에어베어’는 2008년부터 시작된 설치 미술

작품은 비닐봉지로 만들어져 뉴욕거리 평범한 쓰레기처럼 섞여 있다.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내뿜는 배기가스로 조각된 북극곰 형태가 살아나는 것. 조슈아는 쓰레기로 가득한 도시 환경에서 영감을 받아 에어베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시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수년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MoMA) 등에 영구 소장되며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